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

-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

김 현 경⁺

(호원대학교)

이 옥 자

(건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 다섯 명이 힘겨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어왔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여 청년노숙인의 체험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청년노숙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구조적으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실천이론을 확인하고 개발하고자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을 적용하였다. Parse 연구방법의 패러다임에 따라 청년노숙인의 체험을 담은 2차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청년기에 시작된 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세 개의 핵심구조인 1) 일을 해도 빈곤함, 2)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노숙인이 됨, 3) 사회적 낙인과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자활을 향해 분투노력함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전환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도전과 기회를 기다리며 잠재적인 독립의지를 발휘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개념적 통합은 연결-분리의 가치화를 강화와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을 토대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 파시, 인간되어감 방법

* 본 연구는 호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1. 서론

노숙은 개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주거공간의 상실을 넘어 사회생활을 지속케 하는 안정된 기반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숙은 건강, 식사와 영양에 심각한 해를 끼쳐 건강을 악화시키고 범죄노출, 자살 등에 이르게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노숙은 공공시설의 무단점유, 폭력, 방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9년 한국사회의 노숙인은 약 5천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특정시점에서(point-in-time-counts) 숫자로 집계된 거리노숙인, 부랑인, 쉼터이용 노숙인을 제외한 통계수치로 잡히지 않는 노숙인(hidden homeless)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 여명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길거리 노숙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거리에서 사망한 노숙인은 약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기철, 2009).

우리 사회의 문제로서 '노숙'이란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IMF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IMF위기는 기업의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40-50대에 직장을 잃게 된 실직 가장들로 하여금 거리를 방황하게 하였다(김창기, 2007). 실직 가장들 중 평소 부부간 신뢰가 미약했던 경우 실직을 계기로 이혼과 가정해체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노혜련, 2000). 정부에서는 노숙인으로 전락한 실직가장들을 위해 쉼터를 지었으며 공공근로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가 출현하게 되었다. 하지만 IMF 이후 10여 년이 경과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숙의 연령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근로빈곤(Working Poor)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숙의 저연령화는 노숙인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의 서울시인트라넷의 2006년-2008년 이용자 통계에서 확인되어진다. 이용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5%, 30대는 24%, 40대는 39%, 50대는 24%, 60대는 8%로 나타났다. 즉, 20-30대의 인트라넷 활용이 총 29%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20-30대 노숙인 쉼터(Short-term Shelters, Mid to Long-term Shelters)이용자가 1999년 IMF 당시 9.4%였으나 2008년 18.52%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라는 현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적절한 교육과 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결과로 양산된 앵벌이나 ning마주의와는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전홍규, 2006). 일본 역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 사원들의 급여가 낮아져 친구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이소로(식객)현상이 증가했다고 한다. 당시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중도 해약된 젊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회사 기숙사에서 쫓겨나 노숙인이 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경향신문, 2010.9.6b).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2009년 12월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10%(약 40만 명), 15세-34세까지 확대하면 13.8%에 이르는 실업률로 알 수 있다. 15-34세 청년층의 약 43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직업훈련이나 교육조차 받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는 2007년 39만 7천명, 2008년에는 39만 9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NEET족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를 놓쳤거나 진입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경제활

등을 단념한 인구 층이라 할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0). 설상가상으로 2007년 대구지역 거리 및 쉼터 노숙인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10.5%를 차지하여 2004년 3%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2007).

일반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일할 의지가 없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거나 동정의 대상자가 되어 결국 연민피로(compassion fatigue)를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젊은 청년노숙인에 대해서는 주변인의 이해의 여지보다는 혹독한 낙인이 더욱 앞서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 개인이 노숙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분투노력하는 기간이 최소 두해는 소요된다고 한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노숙생활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지만 처음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도 노숙생활의 조건자체가 공통적인 정신적 외상(trauma)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나아가 대인예민성 지수 역시 비노숙인과 비교하여 10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노숙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 지수와 유사하다는 것으로 설명된다(남기철, 2001, 2007, 2008; SBS, 2008).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중첩되어 노숙의 저연령화¹⁾에도 불구하고 청년기 노숙인의 언어를 반영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국내 노숙인 연구의 평균 연령은 모집단별 연구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44-50세이며 98%가 남성으로서 중장년층 노숙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임영인, 2009).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층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시대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 결과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거리노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체험적 현상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의 저연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존재론적으로 거리 청년노숙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사회복지 휴먼서비스 전문가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청년노숙인 클라이언트를 위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서비스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 가족, 지역 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연구 개념으로 하는 Parse(2001, 2007, 2010)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20대부터 거리노숙을 시작한 청년노숙인의 체험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2. 문헌연구

1) 노숙인의 개념 정의

한국의 실정 법령에서 규정한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로 인해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미국의 노숙인 옹호조직인 NCH(National

1) 최근 매체를 통해 보도된 10대 소녀노숙인의 폭행사망사건이 시사하듯 한국사회의 노숙연령은 이제 상당히 저연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SBS, 2010.8.7): 그것이 알고 싶다. 제764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노숙소녀 살해사건의 진실.'; 2009년 서울시 주최 노숙인 저축왕 대회에서 24세 최OO씨가 3년간의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쉼터에 입소하여 2등을 했다고 보도되었다(문화일보, 2009.12.29.).

Coalition for Homeless)에서는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기철, 2008). 하지만, 노숙인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 일본, 미국은 노숙인의 범위를 거리노숙인(street homeless)과 쉼터노숙인(sheltered homeless)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는 Rooflessness(어떠한 종류의 기거할 곳도 없는 상황), Houselessness(임시로 쉼터나 시설에서 기거할 수 있는 상황), Living in insecure housing(불안정한 임대나 퇴거, 가정폭력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 Living in inadequate housing(불법적 야영지에서의 이동주택이나 부적절한 주거, 극단적 과밀주거 등에 사는 경우)의 범주를 노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본질적으로 경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홈리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문제이기에 증거가 아니라 가치판단이 요구되어진다(남기철, 2008, 2010; 윤일성, 2005).

2) 청년기 노숙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을 중심으로

노숙생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취약성은 전쟁을 경험했거나 전쟁터에서 살지 않더라도 굶주림과 영양부족, 휴식의 부족, 약물남용은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사망의 위협, HIV/AIDS, 알코올을 포함한 심각한 약물남용, 간염, 심장질환, 항문질환, 고혈압, 기능적 시각손상, 피부과적 문제 등과 같은 만성적인 의료적 조건에 있는 질병들을 증가시킨다. 인간이 공공장소 및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루하루 수면을 취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일은 일반적으로 인간 경험의 범주에서 벗어난 극도의 고통스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거리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대가가 심리정서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연계되어진다(남기철, 2000; Whitbeck, 2009). 정신과적 선별검사인 SCL-90-R로 거리노숙인과 쉼터노숙인을 조사해 본 결과, 거리노숙인은 신체화 증상, 우울증, 불안증, 공포불안, 강박증, 대인 예민성, 정신증(neurosis)이 확인되었다. 거리노숙인이 쉼터노숙인 보다 3배 정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으며, 8배 정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4배 정도 공포심을 더 느끼고 있었다. 노숙기간이 3개월 증가함에 따라 신체화 증상은 1.3배씩 증가하였고, 대인예민성은 1.8배, 우울증은 경계성 유의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1.3배 위험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단위기간을 12개월로 재계산할 경우 한 개인이 노숙생활을 12개월을 할 경우 비노숙인에 비해 신체화 증상은 3.3배, 대인예민성은 10.5배, 우울증은 2.7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01a).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20-30대 노숙인일수록 신체화증상, 대인예민성, 편집증 같은 부적응 증상이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중졸이하나 고졸보다 대인예민성에 따른 부적응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로부터의 정서적 단절 더 강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지 못한 노숙인에 비해 자아통합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미혼인 경우와 노숙체험이전부터 무직이었던 경우에 공포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김성천, 2001). 노숙인의 건강정도는 취업 및 자활자립 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면서 질병 수가 적을수록 취업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숙인의 일자리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

숙전과 노숙인이 된 이후의 직업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점차 낮은 기술과 불안정한 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직종에 편입되었다. 선택할 수 있는 업종도 대폭 축소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노동 능력이 있는 저 연령층의 욕구는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원하고 있지만, 저학력과 저급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점차 낮은 기술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업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직종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질수록 청년기 노숙인은 점점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나아가 심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노숙인일수록 취업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생활에서 경험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자존감의 높은 손상 등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우울 등의 심리적 손상은 일의 지속성과 부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노숙인은 어려움이나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 취업유지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은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경제 구조를 바라볼 때 청년기 노숙생활의 원인을 오로지 그들 개인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 부족으로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미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고용 없는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업 및 공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윤 추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10명 중 6명 미만이 되게 하였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과 미국의 고용률은 75%를 넘고 있다. 우리 사회의 20대 청년층의 약 62%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그들 중 49.9%만이 정규직이고 50.1%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유, 20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88만원 세대' 즉 '파트타임 근로세대'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근로를 해도 일시적 실직이나 병원입원 등의 문제가 생기면 완전한 빈곤층으로 전락 될 수 있는 근로빈곤(working poor)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 빈곤선의 경계 바로 위를 위협하게 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석훈·박권일, 2007). 나아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출업자들의 적극적인 공세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대출과 정으로 인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경험에 있어서 대부분의 청년기 노숙인들은 아동청소년기부터 가족의 신체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 부모의 알코올문제, 가정폭력, 빈곤, 가정불화, 가족해체, 가출, 쫓겨남 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빈곤 가정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원가족 해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가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아지고, 거리에서 매춘이나 약물, 알코올 중독, 폭행 등에 참여하여 결국 사회적 관계가 고립된 후에 노숙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나일등 역, 2009; National Resource Center on Homelessness and Mental Illness, 2001). 또한 청소년기에 한국과 미국가정의 공통된 문제로는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가출, 소외감, 고립감, 피해의식, 우울, 불안, 자살시도, 성문란 등을 관련변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청년기 문제로는 일과 사랑의 실패로 인한 열등감, 가출, 비행, 자살기도, 부정적 자아정체감, 성문제, 가족과의 유대관계, 원가족과의 분화, 부모의 역기능으로 인한 또래 및 이성문제, 부모에게 의존, 융합, 단절문제 등을 관련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문화적 상황들이 친가족적(pro-family)이라기보다 반가족

적(anti-family) 측면으로 가족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문자, 2001).

정리하자면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구조 뿐 만 아니라 원가족 문제, 질병 등의 개인적인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으로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기 쉬운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국외 노숙인 관련 프로젝트로서 효과적인 결과를 생산한 미국의 예로서 노숙인 당사자 운동²⁾, 시민권과 관련된 법적 분야 프로젝트³⁾, 가족 권리와 존엄성을 위한 프로젝트⁴⁾, 국경 없는 피난처⁵⁾, 컴퓨터방문프로젝트⁶⁾, 거리신문⁷⁾, 약물중독과 정신건강 연구⁸⁾, 집단 고용권 쟁취를 위한 모임⁹⁾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빈곤계층의 주택공급과 서비스를 위한 주택기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 중에서 세금채불이 되어있거나 무단점유된 주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홈리스를 위한 주거 시설에 목욕과 취사 시설 뿐 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위한 시설도 갖추도록 했으며 그러한 혜택이 빈곤층 청장년, 장애인, 한부모 가정, 동거세대에 이르기까지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이다(한국도시연구소, 2001b).

- 2) 설립배경은 공공 정책과 비영리서비스를 계획하고 빈곤층의 권리를 알리는 등 홈리스 스스로의 실천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1987년 설립되었다. 홈리스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의 주체를 홈리스자신으로 보았다. 거의 100% 미국 전역에서 전달되는 기부금과 후원비로 운영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필요에 따라 정부 보조금 및 기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지원받기도 한다. 15명 내외의 상근자의 40%가 저임금을 받는 홈리스 당사자이다. 홈리스는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한다. 홈리스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대해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시 정부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음.
- 3) 법적 투쟁, 권리로서의 교육, 진보정책개발 등 인권침해 종식을 위한 의제설정.
- 4) 홈리스와 저임금 부모들의 정치적 결속을 꾀하고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행
- 5) 1992년 마켓 거리의 다기능 서비스 쉼터 서부지부에서 라틴계홈리스 15명이 설립. 범죄대상이 되고 있는 밀입국한 홈리스 이주자를 대상으로 안정된 환경제공, 사회경제 정의를 증대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 실시.
- 6) 홈리스 당사자가 홈리스 쉼터를 방문하여 쉼터의 환경과 서비스의 실용성 등을 평가.
- 7) 1989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작됨. 현재 홈리스 또는 과거 홈리스였던 이들이 기고하여 매월 1회 발행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한 달에 36,000부를 발행하여 이 중 32,500부를 홈리스 및 빈곤층에게 즉시 제공하여 이들이 거리에서 1달러에 판매한 수익금 100%를 판매자가 갖는 것임. 홈리스에게 매월 1,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제공하며 홈리스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제시하여 상당한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게 됨.
- 8) 홈리스 중 30-40%는 정신장애, 30-60%는 알코올 및 약물 문제, 25%는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데 5150법에 의해 문제로 지목된 노숙인을 정신의학적 평가를 내릴 때까지 72시간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치료 이전에 심한 위기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존 치료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을 공고히 하게 됨.
- 9) 노동자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교육하고 작업현장에서 권리를 침해받는 노동자를 위해 시에 민원조사관을 두도록 요구하는 등 노동자 권리 옹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행. 빈곤층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함.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대부터 노숙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노숙인의 체험적 구조에서 나타난 의미-관계-초월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데 현상학적-해석학적인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을 사용하였다. Parse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 인간되어감 해석학적 방법(the human becoming hermeneutic method)을 적용하여 감독 King과 ‘인간의 체험으로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Parse, 2007: 148-154). 또한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타난 인간의 체험으로서 지혜, 동정심, 그리고 용기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인간되어감과 아동문학을 적용하였다(Baumann, 2008: 322-329). 이와 같이 인간되어감 해석학적 방법은 영화, 영화시나리오, 출간된 텍스트, 동화와 같은 단편 이야기, 뮤지컬에 나타난 참여자 또는 다큐먼트로부터 기술된 인간의 체험(Lived experience)적 자료와 연구자가 행하는 대화(dialogue)인 것이다(Baumann, 2008: 322-329, Parse, 2001: 168; Parse, 2007: 148-154).

또한 인간-삶-건강에 대한 체험을 내담자가 속한 사회와 예술(비평, 미술, 사진, 그림, 연극, 영화)의 고찰을 통해 개별성, 보편성, 의미화, 그리고 역설로서 반영하였다(노춘희·이옥자·이정숙·고명숙 역, 2007: 29). 인간되어감 해석학적 방법은 인간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나 예술형태(artform)로부터 나타나는 인간체험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텍스트나 예술형태와 끊임없이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고요한 시선으로 해석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se는 이러한 과정을 연구자와 해석가의 대화(dialogue)라고 명명하였다(Parse, 1996).

본 연구에서는 청년노숙인 관련 다큐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텍스트를 Parse의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되어감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인간 삶의 변화패턴을 보여주는 다양한 매체와 문헌에서 기술된 인간의 체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Parse, 2001: 168). 다큐 역시 보편적 타당성과 신뢰성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사회성을 담고 있는 장르이며 살아 있는 예술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기에(다큐방송, 2010) 참여자로부터 진정한 정보(authentic information)를 얻기 원하는 Parse 연구의 기본가정에 따라서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파악된다(Parse, 2001: 169-170).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증가하는 청년노숙인편(2008. 7. 26)’ 다큐에 참여한 대상자들과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소식지(다시서기, 2008년 4월호)의 텍스트로부터 수집되었다. 우선 다큐에 참여한 4명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물모자이크처리, 음성변조처리, 신원비공개처리 되었다. 참여자1은 33세이며, 가내영세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10년간 도우며 살다 독립하여 공장노동자, 운전직, 식당웨이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골수염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없어 지자 노숙인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장애수급자가 되는 의존적 삶을 거부하며 독립적인 생활인이 되고 싶어 한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참여자2는 30세이며 노숙생활 2년째이다. 미국서 초등학교를 다닌 유학파였으며 특채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을 중퇴하였다. 학원에서 영어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이었으나 소액의 금융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생활을 시작하였다. 짬짬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기도 한다. 참여자3은 33세로 노숙생활 5년째 접어든다. 가족해체와 금융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현재 노숙인자활센터에서 공공근로 중이다. 참여자5는 34세로 노숙생활 6년째이다. 20대에 직장의 구조 조정으로 실업자가 되어 자영업을 시도했으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상태였다.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인력시장을 통한 일자리라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소식지의 텍스트로 활용된 참여자 4 역시 연령이외에는 신원 미공개된 상태였으며, 28세부터 노숙생활을 한 30세 청년이다. 당시 노숙인자활센터에서 인문학과정을 수료 중에 있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청년들이 노숙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노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어 가는 지 삶의 실제(reality)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2차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질문에 대한 심층적 자료 제공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 TV시사다큐멘터리(SBS: 그것이 알고 싶다, ‘길 위에 버려진 젊은 희망: 증가하는 청년노숙인(2008. 7. 26)’에서 네 개의 사례 그리고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소식지(다시서기, 2008년 4월호)에서 청년노숙인 수기 한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과시 연구방법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출청소년 및 성인남녀의 노숙관련 국내외 문헌연구들과 국내 노숙인다시서기센터 등에서 출간하는 자료들, 성인노숙인 자신의 회고적자서전 등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 자료가 노숙인에 대한 보편적인 핵심적 의미 뿐 만 아니라 ‘청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활용을 결정하였다. 또한 스크린 상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 시청하면서 워드프로세스에 직접 필사(transcript)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의 구조를 발견하고자 존재론적 인간 존엄

성(Ontological Human Dignity, Parse, 2010: 257-262)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에 따라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청년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이다.

4)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파시는 연구를 위한 실체의 본질은 인간과 우주(환경) 그리고 건강과의 상호관계이며(Parse, 1992, 35-42), 건강은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질이며 체험(lived experience)이며, 특히 개인에게 있어 가족과 공동체는 사회와 삶의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우주(환경)이다(노춘희·이옥자·이정숙·고명숙, 2007: 87-88). 파시의 ‘인간되어감 이론(Human Becoming Theory)’은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방법론이며 여기서 ‘되어감’은 가능성을 가지고 초월하는 상호주관적 과정(an intersubjective process of transcending with possibles)과 인간 드러냄(human unfolding)이라 하였다. 이는 인간은 독특한 존재로 세계(우주, 환경)와 함께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하는 의식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은 ‘되어감’이라는 다차원적 과정에서 타인과 함께 공존하고,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을 공동구성하며, 새로운 관계유형을 공동창조하면서, 우주의 영역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한다고 본다(Parse, 1992: 35-42). 파시는 인간되어감 이론을 방법론으로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체험을 기본적인 세 개의 원리와 아홉 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인간되어감의 원리¹⁰⁾

원리	원리내의 개념
1.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가치화와 상상화의 언어화를 통해서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이다.	상상화는 동시에 명백한-잠잠한 앎을 알도록 하는 반성적-전반성적인 앎의 과정이다
	가치화는 개인이 자신의 세계관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대하여 순응-불 순응하는 과정이다
	언어화는 말함-조용히 있음과 움직임-정지함을 통해 가치화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2. 율동적인 관계형성의 패턴을 공동 창조한다는 것은 노출-은폐, 가능-제한, 연결-분리의 역설적인 단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노출-은폐는 동시에 열려 있는-닫혀 있는 것이다
	가능-제한은 선택하는 모든 것에는 기회-제한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결-분리는 타인, 사고, 사물과 상황과 함께 있는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3.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한다는 것은 변형과정에서 자신의	강화성은 비존재의 측면에서 존재의 확인-미확인하는 추진-저항의 과정이다

10) Parse(1998)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pp.35-58): 노춘희·이옥자·이정숙·고명숙 역(2007:40)에서 재인용.

원리	원리내의 개념
독창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독창성은 삶의 확실성-불확실성 속에서 순응-불 순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변형성은 익숙함-생소함의 관점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방식으로 새로운 견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변화에 대한 변화의 과정이다

(1) 원리1: 인간되어감은 인간이 경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을 구성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의미(Meaning)를 가치화(Valuing), 상상화(Imaging), 언어화(Languaging)를 통해서 공동 창조한다. 가치화란 신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과정으로 순응(confirming)-불응(not-confirming)이라는 역설적인 면이 있다. 상상화는 명백한 삶과 잠잠한 삶의 과정을 통해 관념이나 사건의 실체를 그리거나 구성하는 역설적 면을 갖는다. 언어화는 말함-조용함, 움직임-정지함을 통하여 의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화를 통해 타인과 독특한 현실을 상징화하고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2) 원리2: 인간되어감은 우주와 함께 되어감(becoming)의 방식을 역동적이고 율동적(Rhythmicity)으로 공동 구성한다. 관계의 율동적 패턴은 노출-은폐, 가능-제한, 연결-분리로 구성된다. 노출-은폐란 과거에 받아들인 생각, 감정, 신념, 언행 등을 드러내거나 감추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과 목적을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가능-제한이란 소중히 여기는 신념을 확인하고, 가능과 제한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을 선택하여, 고유한 인간이 자신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결-분리란 한 현상과는 연결되고 다른 현상과는 분리되면서 개인의 독특한 현실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상징화함으로써 환경과의 공동참여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이다.

(3) 원리3: 인간되어감은 익숙한 것과 생소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가능성들을 공동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초월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 초월성(Transcending)은 개인의 독창성(Origination)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Powering)시켜 변형(Transforming)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이유는 그녀의 방법론이 개인과 가족, 사회 안에서 상실, 불안, 고통 등 삶의 질과 연관되는 체험의 의미를 찾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체험이 가지는 역설적인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주는데 있어 다른 현상학적 방법보다 강점이 있다. 이는 참여자들의 삶속에 보여주는 '버림과 얻게 됨', '포기와 선택', '혼란·두려움으로 머무름과 분투노력 이후 극복 변화됨'과 같은 아이러니하게 반복되는 패턴에 대하여 이해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어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이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는 체험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Parse 방법에서 이러한 본질들은 우주적인 건강의 체험들로 슬픔, 제한된 자유-자유(feeling restricted-feeling free) 그리고 고통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어휘(words), 상징(symbols), 은유(metaphor), 시 혹은 그림 등으로 체험의 의미를 묘사할 수 있다. 연구 분석 과정

은 다음과 같다(Parse, 2001).

(1) 추출-종합과정(extraction-synthesis)

Parse 연구방법은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기술로 체험(Lived Experience)의 본질에 관한 연구이다. 체험의 의미를 묘사하는 파시의 인간 되어감 연구방법과정은 다음과 같다(Parse, 2001).

- ①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essence)을 추출한다.
- ②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 ③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 추출내용에서 언어-예술(language-art)을 만든다. 파시의 연구방법에서는 참여자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언어화 한 것을 '언어-예술'이라고 표현한다.
- ④ 만들어진 언어-예술에서 핵심개념(core concept)을 다시 뽑아낸다. 구조는 언어-예술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관념이다.
- ⑤ 추출된 구조를 체험의 구조로 종합한다.

(2) 결과로서의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해석 과정은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한다. 이에 대한 발견적 해석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예술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주로 희망, 기쁨-슬픔, 제한-자유,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어휘(word), 상징, 음악, 은유, 시, 사진, 그림 혹은 활동을 기술하기도 한다. Parse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들로부터 찾아낸 것은 새로운 지식과 평소 믿지 않았던 슬픔, 희망, 매일 매일의 주어진 삶(taking life day-by-day),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는 노력 등과 같이 일상의 기초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 인간체험의 이해를 증진시킨다(Parse, 200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총체적인 느낌으로 거리 청년노숙인의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섯 명의 청년노숙인의 체험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과 연결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Maxwell(1996)이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기술적 타당도를 위해 TV모니터에 나타난 청년노숙인들의 행동과 말, 내러티브의 시작과 끊어짐,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흐름을 맥락에 맞게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녹취)하였다. 흐름의 경우 연구 지면을 고려하여 내러티브들을 '...'으로 처리하여 축약하거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해석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목소리, 느낌, 표현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해석적 결과가 참여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노력하였다. 이론적 타당도를 위해서 연구사례들은 1998년부터 201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의 시사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룬 SBS 방송국에

서 제작한 매체자료와 노숙인다시서기센터의 월간지 수기 내용을 활용하였다. 평가적 타당도를 위해 소수의 사회복지전공 및 정신간호전공 교수에게 논평을 받아 해석적 의미를 나누었다. 일반화 가능성은 본 자료가 전체적으로 청년기 거리노숙인의 체험을 대표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분석한 범주와 예의 대표성을 반복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개인적 생각과 느낌을 성찰하면서 다학제적 접근을 위해 정신간호학 전공교수와 한국사회의 청년기 거리 노숙인의 체험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내용의 결과와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십여 년 이상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관련 교재와 논문을 다수 출간하신 정신간호학자 이옥자 교수와 공동 분석하였다. 덧붙여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노숙체험이 전혀 없는 본 연구자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숙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와 대상자 접촉을 반복하였다. 인간되어감 해석학적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관련 텍스트, 문헌기록 등을 반복하여 읽고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할 때까지 함께 살기(dewelling)를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최근 출간된 노숙인의 체험이 담긴 자서전, 시, 수필, 노숙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체험적 에세이, 국내외에서 노숙청소년들이 무고를 입증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의 수감생활 후 무죄로 방면되는 과정을 담은 인터뷰 내용, 노숙인과 청년실업 관련 기사, 클레멘토스 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탈북과정에서의 노숙체험 등을 반복하여 접하였다. 또한 본 연구매체를 제작한 프로듀서 민인식 선생을 2008년 10월에 직접 만나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허락을 서면으로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노숙인이라도 과거에 노숙생활만큼은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점,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개인은 누구라도 노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일단 노숙인되면 외부의 전문적 도움 없이는 자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젊은 연령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더욱 낙인화될 수 있는 20대부터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체험적 구조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1) 참여자들의 구술 및 핵심 개념

분석의 첫 과정은 참여자 다섯 명의 구술을 통해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우선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essence)을 추출한 후,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이후 언어-예술(Language-Art)을 만들어 개념화 작업을 하였다.

참여자 1의 구술내용-구술추출내용-연구자언어로 종합한 내용

참여자 1의 구술내용

1. 아버지 밑에서 거의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렇게 만날 굶주려 가면서 살아야 하나...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손해만 보니까...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 가난

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가장 고통을 준 게 사람들이었어요. 길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어떤 아이가 아빠 저 아저씨 뭐야 이리는데 그 아버지란 분이 저 사람 거지라고...일도 안 하고 저렇게 놀고먹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너무 싫었던 게 일반이들...그러니까 평범하게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쳐다보는 시선들...그 시선들이 배고픔보다 싫었어요.

2. 단 한 순간에 일과 잘 곳이 사라진 거지요. 식당일 할 때는 식당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다가...막상 팔이 이렇게 되고 딱 나오니까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팔을 다치기 전까지 여러 달 일을 전전했어요. 일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일반 공장 같은 데도 가서 일도 해보고, 화물차 운전이나..거의 운전직 쪽에서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반 식당 같은 데 가서 서빙도 보고...그렇게 하다가 이제...그 전까지는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이 팔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됐죠. 흔히 말하는 전단지 있지요. 2시간에 2만원 3만 원 짜리 하는 거 그때는 제가 거의 봉대를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아픈데도 아픈 티를 안 내고 그냥 하루에 한 천 장 이렇게 돌리는 거...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팔이 악화되면서...아 이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으로 빠지게 된 거지요. 제가 수원역에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신부라고 소개하시시면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고 해요. 팔이 좀 아프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무료진료 병원이 있다고 알려 주셨고...팔이 너무 아파서 내 스스로 00시립병원을 찾아왔어요. 진짜 당황되었지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팔을 딱 들려고 그랬는데 안 들리니까...중간에 이렇게 혈관이 파열되는 그것까지 겹쳐 버리니까 더 이제 힘들어졌죠. 이제 난 끝났구나. 진짜...염증을...원팔에는 아예 구멍이...어깨와 팔로 이어지는 신경은 죽은 상태였고...이게 골수염이지요. 더 방치했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3. 삶을 허비하기에는 내 삶이 소중하고 너무 아깝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하지 않았어요. 나는 국가에서 주는 장애인 수급 받고 싶지 않아요. 팔이 어느 정도 나아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면 일을 하고 싶지...평생 장애인으로 의존하면 지내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1. 아버지 밑에서 10년을 일해도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생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고, 노숙자가 되니 사람들의 말과 쳐다보는 시선이 배고픔보다 싫었음.
2. 공장, 화물차운전, 식당서빙, 전단지 배부 등의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팔이 악화되면서 도움청할 곳을 알지 못해 노숙으로 빠져 수원역에 누워있을 때 신부의 병원치료 알선으로 골수염 진단을 받아 치료받게 됨.
3. 삶이 소중하고 아깝기에 국거수급장애인으로 평생의존하며 살기보다 일하고 싶음.

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성실히 근로해도 빈곤했던 가족이 지겨워 가출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세상의 낙인이 고통스러움.
2. 일용직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다 신체질환의 악화와 지지망의 결핍으로 노숙자가 되니 거리 상담을 나온 성직자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됨.
3. 젊기에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의지를 갖게 됨..

참여자1의 언어-예술(Language-Art) : 참여자 1의 청년에 시작된 거리노숙인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성실히 근로해도 가족이 빈곤하여 기출하였고 노숙인에 대한 낙인과 신체질환, 지지망 결핍으로 고통스런 생활을 하였으나 성직자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니 독립적인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 2의 구술내용-구술추출내용-연구자언어로 종합한 내용

참여자 2의 구술내용

1. 완전히 미끄러질 때로 미끄러진 정도...죽고 싶지요. 그냥 모든 게 다 싫고...그냥 바닥 중에서도 바닥!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놈이 줄서서 밥 얻어먹고 하니까 이해 못 할 수도 있겠는데...각자 입장에서는 진짜 견디는 거예요. 내가 거기(거리식사) 줄 안 서 있으면 산에 가서, 방앗간 가서 목을 매야해요.
2. 미국서 초등학교 다녔고 국내 영어 특기생으로 00대학교 독문과에 입학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 학교에 안 다녔어요. 2002년 유학 갈 때 꿈은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내가 원했던 산타모니카 대학이 시립대학이긴 했지만 정식입학을 얻었기 때문에 집에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명문 대학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가라고...그런데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귀신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학교도 마치지 못하게 됐고 미국서 3년을 버티다가 한인 교회 교민들이 모금해서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줘서 간신히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가족들한테 절연당한 거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기대수준에 쫓아가고 쫓아가려다가 너무 힘들어서...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시고 어릴 때부터 저하고 골이 깊었어요.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2년 차쯤 됐을 때 찾아갔었거든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유언이라고...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어머니는 공사장 임시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야간근무 24시간 하는 건설현장 식당인데 000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세부사항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거 지인들 하고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이고... 한국에 왔을 때 잘 곳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영어가 되면 노터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현실에 부딪치니까 학력지상주의, 간판, 졸업장...그런 것에 딱 걸린 거지요. 영어학원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막상 이력서를 냈더니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요. 졸업장이 있는 사람을 찾는 다는 거였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략해 버린 거지요. 완벽한 원어민 영어인데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하니...처음에는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3개월 일도 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생활부터 규모를 잡아 보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거였는데...휴대전화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통신 연체까지 걸렸고 신용까지 망가지니까...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노숙자가 돼버렸죠. 돈이 있는 날 잠자리는 찜질방인데 새벽까지 잠을 이루기 힘들지요. 벌써 2년째 토막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요.
3. 포기하지 않고 베품시장에 과외광고 내서...어제 처음 과외가 들어왔는데 계속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긴장이 아직도 안 풀려요. 언제라도 미끄러질지 모른다는...집이 없으니까...그 긴장감 속에서 계속 생활하는 거지요. 늘 그냥 발가락 위에 삶의 무게가 짓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24시간을 즐기치게 생활하는 거 같아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당장 죽을 거 같으니까...

참여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1. 완전히 미끄러져 바닥으로 살아가니 모든 게 다 싫고 죽고 싶은 생각임.

2.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가라는 아버지를 속이고 시나리오 작가인 꿈을 이루기 위해 산타모니카 시립대학에 갔으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니 가족한테 절연 당하였다.
3. 자수성가한 아버지와는 어릴 적부터 골이 깊었고 유학 후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했으나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어머니와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다.
4. 영어학원에 일자리를 찾고 싶었으나 현실은 대학졸업장을 필요로 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으나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하여 한 순간에 생활이 무너져 휴대전화 대출을 계기로 노숙자가 되어버렸다
5. 찜질방에서 2년째 토막잠을 자면서 포기하지 않고 벼룩시장에 과외광고를 내나 집이 없고 언제라도 미끄러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당장 죽을 것 같은 계속된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니 절망감으로 세상이 싫어지고 자살하고 싶음
2. 성장과정에서 부자 갈등으로 신뢰가 깨지고 가정경제파탄까지 겹치어 가족해체와 학력중심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비정규직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고리대금으로 파산하여 노숙하게 됨
3. 삶의 무게가 버겁지만 포기하지 않고 긴장 속에서 살아감

참여자 2의 언어-예술(Language-Art) : 참여자 2의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절망감으로 자살하고 싶고, 가족해체와 학력 중심 사회로부터의 배제, 비정규직노동, 고리대금파산으로 노숙하게 되었으나, 삶의 무게가 버겁지만 포기하지 않고 긴장 속에서 살아하는 것이다.

참여자 3의 구술내용-구술추출내용-연구자언어로 종합한 내용

참여자 3의 구술내용

1. 다시 서기 위한 필수조건이 일과 잠자리인데...차비하고 담뱃값하고 저녁밥 사먹고 쪽방에 하루 7천원 주고...일 없어서 못 나가면 번 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5만 몇 천원 벌어서 이틀 삼일을 못 살아요. 그나마 쪽 방촌이 재개발 되는 중이라 다 부서지고 있는데...거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쫓겨나면 그냥 노숙인 되는 거야. 누군가에겐 재테크 기회가 되겠지만 단돈 7천원에 하룻밤을 찾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2.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높은 연봉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정된 일자리 이예요. 나를 노숙자로 만든 게 신용불량인데 그 돈이 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가족이나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니까 주민등록 말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변제신청을 하고 5년간 매월 번 돈의 절반씩을 갚아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그러려면 규칙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첫 단계에서 매번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연락이 와도 주민등록이 말소 된 상태라고 하면 일을 안줘요. 가족이 해체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그대로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지요.
3. 새벽 6시면 노숙인 센터에서 밖으로 나와야 해요. 그게 정해진 규율이라서..일터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평소에는 건너뛰었을 아침이지만 막노동 인력시장이라도 나가 서 보려면 큰 맘 먹고 라면하고 김밥을 먹어야 합니다. 센터에서 매달 3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공근로가 아니라...자활은 원래 1년에

10개월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더 못하게 되면 센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다른 데도 있고...가서 또 할 수는 있는데...차라리 그 전에 어느 정도 방을 구하려고 인력시장도 나가고 시간 되는대로 파지모아서 팔고...추워지면 봉어빵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청년공공근로사업도 신청해 두었구요. 그렇게 세상을 배워가는 거지요.

참여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1. 쪽방촌이 재개발 중이라 일과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걱정이다.
2. 간절히 원하는 건 최소한의 안정된 일자리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 이기에 규칙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가족해체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3. 새벽 6시이면 노숙이 센터에서 나와 일터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자활센터에서 월 30만원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시간되는 데로 파지도 모아 팔고 봉어빵 장사와 청년공공근로사업신청도 하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쪽방촌이 재개발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니 다가올 내일이 걱정됨
2.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 대출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주민등록의 말소와 가족 해체로 지지 땅이 없으니 노숙인이 됨.
3. 자활의지를 갖고 세상을 배우기 위해 일거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체험임.

참여자3의 언어-예술(Language-Art) : 참여자 3의 청년에 시작된 거리노숙인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재개발로 삶의 터를 잃어 내일이 걱정되고, 일자리가 없어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해체로 지지땅이 없으나, 자활의지를 갖고 일거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참여자 4의 구술내용-구술추출내용-연구자언어로 종합한 내용

참여자 4의 구술내용

1. 더 이상 떨어질 밑바닥이 없습니다. 스물여덟에 남들에게 천시 받고 손가락질 받는 노숙인이 되었습니다.
2. 사람들은 노숙인을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아무나 붙잡고 싸우고 노상방노와 고성방가를 하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이나 주어먹고 돈이나 구걸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안됐다.' 라는 생각 말고 "왜 저 사람이 노숙인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노숙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술을 먹게 되었고 집이 아닌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으며 "왜 술에 취해 울부짖는지 고민하기보다 열 분 중 한 분은 '참 안됐다.' 라며 동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나머지 아홉 분은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찰 것입니다.
3. 처음엔 '공부를 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 지레 겁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문학과정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인문학과정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등에 매고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며, 더 이상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물론 쉬운 길이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문학과정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제도전해야 할 세상을 배울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다시 이런

큰 기회를 차버린다면 우물 안에서 빛이 있는 넓은 바깥세상을 바라 볼 기회가 그만큼 더 늦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동안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약으로 삼고, 인문학 과정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1년이 지나, 과정을 마무리 하는 때에 새로운 모습의 제가 되어 사회로의 재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젠 틀렸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참여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1. 스물여덟에 천사와 손가락질 받는 노숙인이 되었다.
2. 사람들은 노숙인을 술 마시고 행패부리고 아무나 붙잡고 싸우고 노상방뇨와 고성방가를 하며 길에 떨어진 음식을 먹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왜 저 사람이 노숙인이 되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질 한다.
3. 노숙자센터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아 인문학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로의 재도전을 할 기회를 찾아보려고 했다.

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20대에 세상에서 끝까지 추락한 노숙인이 됨
2. 비노숙인은 사회구조적으로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으로 노숙인 개인을 비난함
3. 인문학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과제를 발견하고 도전의 기회를 찾으려는 체험임.

참여자 4의 언어-예술(Language-Art) : 참여자 4의 청년에 시작된 거리노숙인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20대에 세상 끝으로 추락하였고, 노숙인이 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보다 개인을 비난하니, 인문학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 과제를 발견하고 도전의 기회를 찾got자 함이다.

참여자 5의 구술내용-구술추출내용-연구자언어로 종합한 내용

참여자 5의 구술내용

1. 정리해고 당해서 내 힘으로 서 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는데 결국 노숙자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거리 노숙 생활한지 한 6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퓨전 포장마차를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올라왔거든요. 어유...저 지금도 빚이 많아요. 한 1억 4천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감당할 액수가 아니에요.
2. 영등포 공원에 벤치가 다 있었는데 노숙자들이 잔다고 다 없애 버렸어요. 공원에서..수도꼭지도 다 없애 버렸어요. 정자도 없애 버렸지요. 노숙인 거리조사반이 생겨서 공원이나 역에서 못 자게 돌아다녀요. 젊은 노숙인들은 돈 생기면 PC 방에서 숙식해결을 하면서 지내고..그나마 시간당 5백 원일 땀 사람이 많았는데 카드제로 바뀌는 바람에 돈 없는 사람들은 그곳도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뭐 아니면 고시원 가는 사람도 있고...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니까...쉽게 말하면 막노동...하루 일 갔다 오면 딱 남는 게 주머니에 5만원 남아. 서로 빌려 쓴 거 있을 거고...노숙인들 가는 PC 방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인근에 만화방에서도 살구요. 거기서 장기 숙소도 제공해 주니까...1년 넘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3. 새벽 4시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기다려요. 노숙생활 하다가 일 다니면서 고시원 생활로 바뀌고... 좀 더 나아지면 자기 방 하나 얻어서 나가게 되고...쉬는 날 뭐해요. 나와서 일도 하고...먹고 살려면 해야 하나까...

참여자 구술을 추출한 내용

1. 정리하고 후 휴전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빚을 지어 감당할 수 없어 안간힘을 써 보았으나 노숙자가 되었다
2. 노숙인 거리조사반이 노숙자를 공원이나 역에서 못 자게 하기 위해서 공원벤치, 공원수도꼭지, 정자를 없애어 PC 방이나 만화방에서 장기 숙식을 하게 되었다.
3. 노숙생활 하다가 인력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고시원생활을 하고 더 나아지면 방을 하나 얻어 생활한다.

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정리하고 후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자 했으나 사업실패로 부채가 쌓여 노숙인이 됨
2. 노숙인 임시거주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어가다 만성적인 노숙생활을 하게 됨.
3.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고자 굳은 일이라도 찾아다니며 분투노력함.

참여자 5의 언어-예술(Language-Art) : 참여자 5의 청년에 시작된 거리노숙인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정리하고 후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자 했으나 부채로 인해 거리 노숙인이 되었고, 임시거주지에서 버티다가 만성적 노숙상태를 벗어나기 힘드니, 굳은 일이라도 찾으려고 분투노력하는 것이다.

2) 언어-예술(Language-Art)

〈표 2〉 언어-예술(Language-Art)

	언어-예술	개념적 통합
참여자1	성실히 근로해도 가족이 빈곤하여 가출하였고 노숙인에 대한 낙인과 신체질환, 지지망 결핍으로 고통스런 생활을 하였으나 성직자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니 독립적인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가치화 가능-제한 변형성
참여자2	절망감으로 자살하고 싶고, 가족해체와 학력 중심 사회로부터의 배제, 비정규직노동, 고리대금과산으로 노숙하게 되었으나, 삶의 무게가 버겁지만 포기하지 않고 긴장 속에서 살아하는 것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강화성
참여자3	재개발로 삶의 터를 잃어 내일이 걱정되고, 일자리가 없어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해체로 지지망이 없으나, 자활의지를 갖고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강화성
참여자4	20대에 세상 끝으로 추락하였고, 노숙인이 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보다 개인을 비난하니, 인문학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 과제를 발견하고 도전의 기회를 찾고자 함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5	정리하고 후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자 했으나 부채로 인해 노숙인이 되	가치화

있고, 사회적 배제로 만성적 노숙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니, 굳은 일이라
 도 찾으려고 분투노력하는 것이다. 연결-분리
 강화성

청년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의 구조와 파시의 이론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구술에서 추출한 언어-예술(Language-Art)로 체험의 구조를 서술적으로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1은 아버지와 영세한 가업을 도우며 성실히 일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기에 독립적으로 살아보고자 가출하였으나 배고픔 보다 노숙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청년노숙인 체험의 가치화를 드러내었다. 신체질환이 악화되자 그나마 열악한 일조차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삶의 제한을 체험했으나 길거리 상담을 나온 성직자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통해 삶의 가능성을 체험하였고 장애인등록을 통한 국가보조금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고자 변형되어가는 체험을 나타내 주었다. 참여자 2는 목매어 죽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완전히 미끄러진 삶을 살고 있기에 절망스러워 자살하고 싶다는 가치화를 나타내었다. 진로문제로 가족에게 절연당하고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학원 강사를 하며 생계를 이었으나 고리대금으로 인해 노숙자로 전락하여 사회적으로 단절된 체험을 드러내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긴장으로 일상을 흔들어 놓으나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보려는 강화성으로 미약하나마 세상과 연계되고 있다. 참여자 3은 일자리도 없는데 쪽방촌까지 재개발되어 잠자리를 해결할 수 없어 청년노숙이 되었다는 빈곤의 구조적인 측면을 가치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일자리조차도 불안정하여 소액 대출을 받았으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주민등록조차 말소되자 세상과 분리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자활의지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강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 4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청년노숙인의 체험을 가치화하였다. 동시에 노숙인이 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만 비난하니 주변인과 분리됨을 느끼게 되나, 노숙인센터의 인문학과정을 통해 노숙인 체험을 오히려 자기 성장을 향한 도전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참여자 5는 정리 해고 이후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으나 빚에 눌려 노숙생활로 접어든 과정을 가치화하였다. 노숙인 거리조사반에 의해 무임으로 잘 곳을 잃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가나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나섬으로써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분투노력하는 강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핵심개념에 대한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for the Core Concepts)

〈표 3〉 핵심개념에 대한 발견적 해석

핵심개념	구조적 전환	개념적 통합
일을 해도 빈곤함(근로빈곤)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노숙인이 됨 사회적 낙인과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자활을 향해 분투노력함	불안한 미래 절망과 두려움 기회와 도전으로 잠재적인 독립의지를 발휘함	가치화 연결-분리, 기능과 제한 강화성, 변형성

구조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일을 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노숙인이 되어 사회적 낙인과 단절을 경험하나 자활을 행해 분투노력하는 과정이다.

구조적 전환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도전과 기회를 기다리며 잠재적인 독립의지를 발휘하는 과정이다.

개념적 통합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가치화를 연결-분리, 가능-제한하여 강화와 변형을 하는 과정이다.

예술적 표현

꿈과 현실 사이의 공간에는 오직 몸과 마음이 지친 삶의 수레바퀴 속의 내 삶의 존재를... 외쳐야만 살아남는... 우리는 노숙자들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노숙자로 방황할 수 없기에... 버려진 휴지조각처럼 거리를 뒹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휴지가 다시 재생되어서 향기가 나는 새로운 휴지로 탄생하듯, 내 못난 삶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고개 너머로 던져 버리고 오뎅이처럼 일어나서... 자활의 의지로 당당한 사회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숙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출처: 노숙인 이00(2009. 7).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월간지. <http://www.homelesskr.org>.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의 발견적 해석의 결과는 1) 일을 해도 빈곤함(근로빈곤), 2)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노숙인이 됨, 3) 사회적 낙인과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자활을 향해 분투노력함 이라는 세 개의 핵심개념으로 추출되었다. 세 개의 핵심개념은 '일을 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노숙인이 되어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경험하나 자활을 행해 분투노력하는 과정이다'라는 하나의 구조로 나타났다. 추출된 구조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도전과 기회를 기다리며 잠재적인 독립의지를 발휘하는 과정이다.'로 정리되었다. 위의 발견적 해석의 결과인 세 개의 핵심 개념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개념적으로 통합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 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근로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가치화(valuing)를 드러내었다. 임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경쟁 시장에 관대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근면이 빈곤을 해결해 준다'는 논리는 보장되지 않는 '미래의 불안감'과 무기력감만 느끼게 할 뿐이었다. 빈곤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숙달된 기능, 충분한 초임 급여, 승진 가능성 있는 직업 등 안정된 일터를 갖추어야 한다. 허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기부터 영세한 가정 사업을 돕거나 막노동,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임금의 파트타임, 구조조정 이후 시작한 사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니 빈곤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 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경제적 빈곤과 가족유대감 약화로 결국 가족이 해체되어 거리 노숙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

된 가족적 배경이 구축되지 못했었다. 빈곤은 결국 가족 간의 유대를(connection) 약화시켜 가출이나 쫓아냄으로 가족구성원간의 배제를 체험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결국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어(separation) 쪽방, 만화방, PC방, 고시원 등 주거 빈곤화를 체험하게 하였으며, 도시재개발 등으로 그러한 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할 때에(enabling) 결국 20대 청년기부터 노숙생활을 하게 되는 '절망감과 두려움'을 체험하게 되었다. 청년기부터 신용불량이나 주민등록증 말소로 하루 이틀 시작한 노숙생활은 외부자의 적절한 개입 없었다면 결국 만성화된 노숙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장기화된 노숙생활은 삶의 의욕을 잃게 하여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limiting) 역동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 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은 노숙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자활을 향해 분투노력함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는 주변사람들이 청년기부터 노숙생활을 하게 된 자신의 심리내적인 갈등과 역동을 이해해주기 보다 그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낙인찍음으로서 사회적으로 단절됨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거리상담(outreach) 서비스를 비롯하여 의학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개입과 지지를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골수염치료를 통해 독립적 생활을 결심하게 되고, 인문학과정 수료를 통해 자기성찰을 하게 되는 변형성(transforming)을 나타냈으며, 파트타임이라도 찾으려 노력하며, 자활센터에서 청년공공근로와 봉어빵을 굽는 최소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인력시장 노동이라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강화성(powering)을 나타내었다. 즉, 자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제도전을 통해 잠재적인 독립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 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의 통합된 구조는 노숙인이 직접 쓴 수기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라는 일부 표현을 통해 강화되어진다. 노숙인의 존재를 꿈과 현실사이에서의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있다. 수레바퀴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굴러야 할 과업이 있듯 청년노숙인 역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힘껏 외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청년노숙인의 삶을 가치화하고 있다. 또한 버려진 휴지조각처럼 더러운 존재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낙인찍혔던 청년노숙인이라는 못난 삶을 단절하고, 쓰임새 있는 새로운 휴지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고 한다. 이제는 오뎅이처럼 탄력 있게 강화되고, 자활의 의지를 세워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변형성으로 청년노숙인에서 벗어나 자존심 갖춘 사회인이 가능하게 되리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5. 결과 논의

우리사회에서 20대부터 거리 노숙인으로 살아왔던 대상자들의 체험적 결과를 몇 가지 영역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노숙인은 거리노숙 생활 이전부터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빈곤과 유대가 결핍된 가족으로부터의 탈출과 가족해체, 불안정한 고용, 재취업의 어려움, 소액의 대출금조차 갚을 수 없게 된 한 순간의 실업, 신용불량, 질병에 걸림, 사회참여를 통한 기술훈련이나 교육부족, 사회적 연계 단절로 인해 청년기의 사회 이행을 지

원해 줄 만한 적절한 지원서비스와 주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노숙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개인 및 가족에게 빈곤의 구성요소는 경제적인 것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고, 과거의 것이며 현재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로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일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로 이루어진 전체 구조에 손을 대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을 통한 숙달된 기능과 적절한 초임급여, 삶을 향한 명확한 목적의식과 강한 의지, 빛이나 질병, 중독증이 없어야 하고, 사회적 기능을 하는 제대로 된 가족과 친구 관계망, 민간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원조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열거조건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것이 문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숙인의 저연령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곤하게 살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년노숙인은 사회적 낙인과 단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며 실질적으로 취업의지가 있기에 자활(독립)을 향해 분투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때 자활(독립)은 그들에게 심리사회적으로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의 지지와 연대에 기반 하여 존재하고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탄력성'은 위험상황의 영향을 수정하도록 하는 기제나 과정, 그리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발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탄력성이란 개인 혼자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도우려는 주변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탄력성은 오로지 개인 기질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영향이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협력인 타인과의 연계를 통해 삶이란 의미 있는 것이며, 결국 해결되어진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Tedeschi and Calhoun, 1995, 1999). 연구참여자 1은 거리노숙생활로 인한 신체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수급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젊은 연령에 수급자라는 의존적 생활을 거부하고 자활자로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연령이 젊은 노숙인일수록 신체화증상이나 대인예민성, 편집증, 강박증과 같은 부적응 증상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점, 노숙생활 이전에 근로경험이 있었던 경우 삶에 대한 공포불안이 낮다는 점,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을 포함하는 요인인 자아분화수준, 즉 개인이 자신의 지적체계와 정서체계를 타인과 분리시켜 개별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 청년기 노숙인의 경우에도 신체화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신경증에 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정숙·김성천, 2001)을 지지할 수 있다.

셋째, 청년노숙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치료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성직자, 직업상담가, 작업치료사 등 다학제적 팀으로서 청년기 노숙인과 안정된 치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청년 노숙인에게 대상 관계적 측면에서 세상과의 연결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본 텍스트로부터 연구참여자 1의 치료적 관계를 유추해 보면, 연구참여자 1은 성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질병치료와 더불어 삶의 설계를 구축하게 되고, 연구참여자 3은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으며, 연구참여자 4는 클레멘토스 교육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와 성직자를 통해 과거로부터 벗어나 생의 의지를 갖게 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5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홀로 문제를 지탱하며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노숙생활 6년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2는 국내 대학을 자퇴하고 미국유학생이었다는 학력을 강조함으로써 공

포불안을 느끼면서도 당사자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조전문가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청년노숙인이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유는 청년노숙인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이미 가족해체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부여할 수 있는 치료적 관계 형성은 청년노숙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역량강화를 지지해 줄 것이며 그들의 자립 및 자활을 촉진시키는 보호적 요인이 된다는 점, 또한 청년노숙인의 삶의 질 회복은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정상화(normalization), 경제적 적응과 자활을 돕기 위한 취업 연계 서비스지원, 치유적인 관계를 통한 개인의 건강한 존재성(well-being)의 회복 등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전홍규(2006), 민소영(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청년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신체적-정신적-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6. 결론 및 제언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경제 구조로 인해 20대 청년기부터 시작된 거리노숙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회복지 연구대상으로서는 관심영역 밖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더욱 이해될 수 없었던 청년기 거리노숙인의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기존 우리 사회에서 각성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나아가 노숙의 저연령화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청년 노숙인이 어떻게 거리노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디어 가는지 그 현상의 의미와 구조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 자료는 20대 청년기에 거리노숙을 시작하게 된 대상자들의 텍스트인 2차 자료였으며 이를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신체적-정신적-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노숙의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법적 노숙인은 아니나 미래에 성인 노숙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빈곤가정, 해체가정 및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노숙 현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여성노숙인 및 자녀를 동반한 노숙인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0.9.6a. 고용난민 '버블붕괴 이후 늘어난 불안정 노동 개인 아닌 사회적 책임 자각 큰 성과: 당 사자운동 기수 아파미야 가린'
- 김창기. 2007. 『제3의 인생(중년실직 시대의 인생법칙)』. 서울: 행복포럼
- 나일등 역. 2009. 워킹 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한다. David K. Shipler. 2004. *Workin Poor : Invisible*

- in America*. 서울: 후마니타스.
- 노춘희·이옥자·이정숙·고명숙 역. 2007. 인간되어감 이론으로 본 지역사회 공동체. Rosemarie R. Parse. 1998.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pp.35-58). 서울: 현문사
- 노혜련. 2000. "실직자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욕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55-183.
- 남기철. 2001. "노숙자의 심리사회적 외상특성과 보호시설 퇴소". 『사회복지연구』 17: 29-63.
- 남기철. 2007. "노숙인 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쟁점" 『사회복지연구』 35겨울: 313-336.
- 남기철. 2008. "노숙인 개념과 공공의 인식" 『생활과학연구』 13: 33-44.
- 남기철. 2009.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한국사회정책』 15(2): 217-250.
- 남기철. 2010. 홈리스복지법의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홈리스복지법 제정관련 정책토론회자료집. 7-22.
- 다큐방송. 2010. "BBC 다큐특강.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http://www.daqcasting.com/3296>
-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2007. 대구지역노숙인실태조사보고서.
- 민소영. 2005. "사례관리와의 치료적 관계가 정신장애 노숙인의 정신건강 외래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64-91.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 임영인. 2009.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서울: 살아보이는 창
- 윤일성. 2006. "영국의 노숙자 연구: 원인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35-275.
- 전홍규. 2006.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거주". 『도시와 빈곤』 2(78): 38-66.
- 전병유. 2010.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 대기업·정부부문 '양질의 일자리' 중대가 해답. 경향신문 (2010.8.25).
- 최은주. 2002. "노숙인의 취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미간행).
- 정문자. 2001. "연구와 임상에서 살펴본 한국 가족문제와 관련변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9(2): 1-34.
- 이정숙·김성천. 2001. "노숙자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9(2): 52-72.
- 한국도시연구소. 2001a. "거리 노숙자들의 건강 실태와 주거문제". 『도시와 빈곤』 49: 86-89.
- 한국도시연구소. 2001b. "샌프란시스코 홈리스 연합의 노숙 당사자 운동". 『도시와 빈곤』 49: 66-7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도시노숙자실태조사
- Baumann, S. L. 2008. "Wisdom, compassion, and courage in the Wizard of Oz: A humanbecoming hermeneutic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21(4): 322-329.
- SBS. 2008.7.26. 그것이 알고 싶다. 길 위에 버려진 젊은 희망: 증가하는 청년 노숙인.
-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Sage Publication.
- National Resource Center on Homelessness and Mental Illness, May. 2001. Annotated Bibliography. Homeless Adolescents and Adolescent With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s. New York.
- Parse, R. R. 1992. "Human becoming: Parse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 35-42.
- Parse, R. R. 2001. *Qualitative inquiry: The path of sciencing*. Sudbury, MA: Jones & Bartlett.
- Parse, 1996. "Building knowledg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road less traveled". *Nursing Science Quarterly* 9: 10-16.
- Parse, R. R. 2007.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in 2050". *Nursing Science Quarterly* 20(2): 308-311.

- Parse, R. R. 2010. Human Dignity: "A humanbecoming ethical phenomenon". *Nursing Science Quarterly* 23(3): 257-262.
- Statistics Korea. 201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February 2010, <http://www.kostat.go.kr>
- Tedeschi, R., and Lawrence G. Calhoun. 1995. *Trauma &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 Tedeschi, R., and Lawrence G. Calhoun.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Willig, C., and Wendy Stainton Rogers. 200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hitbeck, L. B. 2009. *Mental health and emerging adulthood among homeless young people*. New York: Psychology Press.

**Lived Experience of Difficult Times for
Young Adult Street Homeless**
- Application of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

Kim, Hyun-Kyoung
(Howon University)

Lee, Ok-Ja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experience of young adults street homeless aged 20-30s by knowing meaning and structure of empirical phenomena for procedure that how young adults became street homeless according to bio-psycho-social change. Five young adults street homeless were recruited who were on the air of SBS program, 'That why we want to know: young hope on the road-Young adults homeless are increased(Saturday July 26, 2008)', and from 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Homeless Center in Seoul. And phenomenological and heuristic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of Parse was applied in this study. Although young adults street homeless made an opportunity for job, the working poor made him street homeless who suffer from social stigma and exclusion, but he struggled for self-support with social care.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 adult street homeless depends on the social care under human rights with the bio-psycho-social aspects.

Key words: Young adult street homeless, difficult times, Parse,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논문 접수일 : 10. 09. 30, 심사일 : 10. 10. 13, 게재 확정일 : 10. 02. 18]